

가람 이병기(李秉岐)의 교육 사상

— 양계초(梁啓超)의 영향을 중심으로 —

이경애(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 목 차 〉

- | | |
|-----------------------------|--------------------------|
| 1. 서론 | 2.2. 『음빙실문집』을 통한 양계초의 영향 |
| 2. 본론 | 2.3.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 |
| 2.1.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
형성 배경 | 3.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람 이병기(李秉岐, 1891~1978)의 학문과 사상의 근간이 된 근대 계몽기 중국 양계초(梁啓超, 1873~1929)의 사상을 중심으로 그 수용 양상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평생 교육에 헌신한 가람의 학문과 교육 활동에 나타난 교육 사상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양계초 사상을 수용한 가람의 학문과 사상이 제국주의와 서구 열강들의 침략에 대항하는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으로의 가능성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또한 당대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던 역사적 시대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교류를 통하여 가람의 사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확장하고자 한다.

가람은 근대 계몽기 양계초의 사상을 수용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을 중시하고 국문교육과 역사교육을 중시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1446).

으로 하는 민족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공교육과 민중 계몽교육에 선도적 교육 실천가로 평생 살았다. 국문학자로, 한국의 유교적 전통을 계승한 학자로 알려져 있으나, 양계초 사상을 수용한 그는 근대의식과 동아시아적 시각을 지닌 교육자이자 학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교육 사상에서 근대적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을 이룬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의 원동력을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의 영향에서 발견하고 그의 교육 사상을 교육 이념, 목적, 대상, 내용,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의 의의와 근대적 위상을 제고한다.

주제어 : 가람 이병기, 양계초, 『음빙실문집』, 교육 사상, 민중계몽

1. 서론

1.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가람 이병기(李秉岐, 1891~1978)가 신학문에 뜻을 두고 교육에 헌신한 계기가 된 근대 계몽기 양계초(梁啓超, 1873~1929)의 교육 사상을 수용한 경위를 추적하고 그 사상을 비교하면서, 그의 학문과 교육 활동에 나타난 교육 사상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그리하여 양계초 사상의 수용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가람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확장하고자 한다.

가람은 근대 계몽기 양계초의 사상을 수용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을 중시하고 국문교육과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공교육과 민중 계몽교육에 선도적 교육 실천가로 평생 살았다. 국문학자로 한국의 유교적 전통을 계

승한 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양계초 사상을 수용한 그는 근대의식과 동아시아적 시각을 지닌 교육자이자 학자이기도 하다.

한국 근·현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계몽가 양계초의 사상의 수용 과정과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가람의 개혁사상, 애국사상, 교육·계몽사상과 행적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 한국학에서 차지하는 가람 이병기의 근대적 위상을 파악하고, 근대적 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을 이루어낸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현대 한국 교육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면서 양계초 사상을 수용한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을 중심으로 그 영향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청말 중국의 지식인 양계초가 한국의 학자·문인·사상가 등 지식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가람과 비교하고, 그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가람의 근대적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그동안 발표되지 않은 가람의 미발표 일기와 자서전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가람이 양계초의 사상을 수용한 경위를 추적할 수 있어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양계초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가람의 사상과 의식을 고찰함에 문헌학적 관점과 비교문학적 관점의 방법을 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련된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을 와 중국의 양계초 개화기 지식인들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비교 대조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논의의 초점은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과 교육론에 맞추어 진행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양계초의 교육·학술 사상을 수용한 가람의 교육 사상을 중심으로 하며, 이에 대한 영향의 비교는 가람과 양계초에 더하여 1세대 개화기 지식인들의 교육 사상과도 비교 고찰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논의의 범위와 자료는 양계초 사상의 영향을 통한 가람 이병기 교육 사상과 실

천에 관한 논의로 한정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람 이병기가 남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메타자료까지도 활용한다. 이런 자료들을 분석·검토하여 먼저 서구적 근대성 담론을 뚜렷이 의식하면서 그와의 대비 혹은 대조를 통해 한국 및 동아시아의 독자적 근대성 개념을 가늠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와 비교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람 이병기는 한국의 전통적 유교 사상을 계승자로 그에 관한 연구는 시조와 국문학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그의 근대의식과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언어와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

둘째, 그동안 중국과 한국을 배경으로 양계초 사상²⁾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개화기 한국의 학자, 문인, 사상가들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박은식, 신채호, 장지연, 이해조, 안창호, 윤치호, 한용운, 안확, 양주동 등 개화기 계몽가들의 정치·학술·문학·교육 사상을 중심으로 양계초의 사상과 활발한 비교 연구³⁾가 이루어졌으나 가람과 양계초의 영향에 관한 연

1)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 -『문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배개화, 「이병기를 통해 본 근대적 문학어의 창안-,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이경애, 「전통지향과 근대지향의 간극을 넘어서-가람 이병기의 근대의식-, 『국어문학』 69, 국어문학회, 2018.

2) 최향순, 「양계초(1873~1929)의 교육 사상 재고찰, 『한국교육사학』 18, 한국교육사학회, 1996.

허도학, 「양계초사상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이승원, 「양계초의新民교육 사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3)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연구 : 양계초를 통한 서구사상수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75.

김춘남, 「양계초를 통한 만해의 서구사상수용 : 조선 불교유신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셋째, 가람이 지닌 교육자로서의 면모는 학자로서 문인으로서 업적과 함께 후배 학자들과 제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크고 훌륭한 스승으로 회자 되고 있다.⁴⁾ 이들은 단평의 형식으로 가람과의 개인적 교분을 위주로 인간적인 면모로서의 교육자의 상을 담아내고 있다. 최근 이민희⁵⁾는 가람의 교육자로서의 면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초창기 국어교육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는 논의를 밝혀 의의가 있다. 그러나 평생 교육에 헌신한 그의 교육관이나 교육 사상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넷째, 가람의 여성 문학관⁶⁾과 한글 운동⁷⁾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이들을

박홍식, 「안확(安廓)의 애국계몽 사상(思想) -철학사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1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박찬승, 「한말 신체화와 양계초의 역사연구방법론 비교」, 『한국사학사학보』 9, 한국사학사학회, 2004.

육연옥, 「윤치호와 양계초의 교육 사상 비교 :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오조자, 「박은식의 교육 사상」,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우남숙, 「자강, 독립, 사상 연구 : 장지연, 박은식, 신체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문대일, 「양주동(梁柱東)과 양계초(梁啓超)의 시(詩)와 시론(詩論)의 관련 양상」, 『세계문학비교연구』 57, 세계문학비교학회, 2016.

4) 김민수, 「우리 스승 가람 선생」, 『어문연구』 29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최승범, 「가람의 인간상」,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예동학인, 「가람과 나」, 『전북대학교보』 26호, 전북대, 1956. 6. 22.

박병순, 「가람 이병기 스승님의 추모」, 『문학한글』 8, 한글학회, 1994.

5) 이민희, 「교육자로서의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에 관한 종합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6) 남정희, 「가람 이병기의 여성문학과 여성」, 『우리문학연구』 45집, 우리문학회, 2015.

7) 윤석민, 「가람 이병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연구 : 『가람日記』를 중심으로」, 『애산학보』 40, 애산학회, 2014.

전도현, 「이병기의 한글 문예운동에 대한 일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1권 20호, 한국근대문학회, 2009.

박용규, 「이병기의 한글운동과 조선어학회 사건의 의미」, 『2013 가람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익산시 문화재단, 2013. 9. 6.

교육적 성과로 확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또 미군정청 시기 편수관으로 우리 국어교육의 지침을 만들고 국어 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가람의 역할에 관한 연구나 그가 편찬한 교과서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⁸⁾ 따라서 그의 교육에 대한 사상과 의식의 고찰을 위해서는 그 시기의 활동과 역할과 더불어 그의 교과서에 대한 고찰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가람의 교육 활동과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람의 교육 사상의 배경과 형성과정에 주목하며 그것이 가져온 결과와 당대 영향력, 그리고 그 의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2. 본론

2.1.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 형성 배경

가람의 방대한 업적과 활동은 근대의식과 계몽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근대 지식인의 새로운 근대적 변화에 대한 많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사상이나 의식, 또한 그것을 형성하게 된 원동력에 대해서는 거의 규명된 바가 없다. 다만 그가 신학문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양계초의 『음빙

8) 김윤식, 「문학교육과 이데올로기 -국어교과서의 역사성 비판」, 이응백 외, 『광복 후의 국어교육』, 한샘출판사, 1992.

남민우,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4집, 국어교육학회, 2005.

윤여탁 외,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재-건국기」, 『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6.

정영훈, 「미군정기 국어교과서의 편찬과정 재론 -조선어학회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달말』 50집, 배달말학회, 2012.

——, 「해방기 국어교과서 편찬과 가람 이병기」, 『2013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익산시 문화재단, 2014.

실문집』을 읽고서였다는 언급⁹⁾이 있으며, 그 부친의 호남학회 활동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¹⁰⁾ 외에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따라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의식이나 사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람은 1891년 전북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여덟 살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으며 사략, 소학, 사서삼경, 시전, 서전까지 읽어 한학에 문리(文理)가 날 정도였다. 그가 출생한 시기는 구한말 조선의 국운이 쇠퇴한 시기였고 동학혁명이나 청일전쟁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었다. 백성들은 민간에 떠도는 예언이나 비결들에 의지하거나 현실도피적이 되어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였다. 당시 상황에서 어릴 적 조부와 그 연배들이 모여 앉으면 난리가 나느니, 나라가 망하느니 하고, 정감록의 해설이 어떠하다느니 하면서 피난처를 찾아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가람은 한문만을 유일한 학문으로 알았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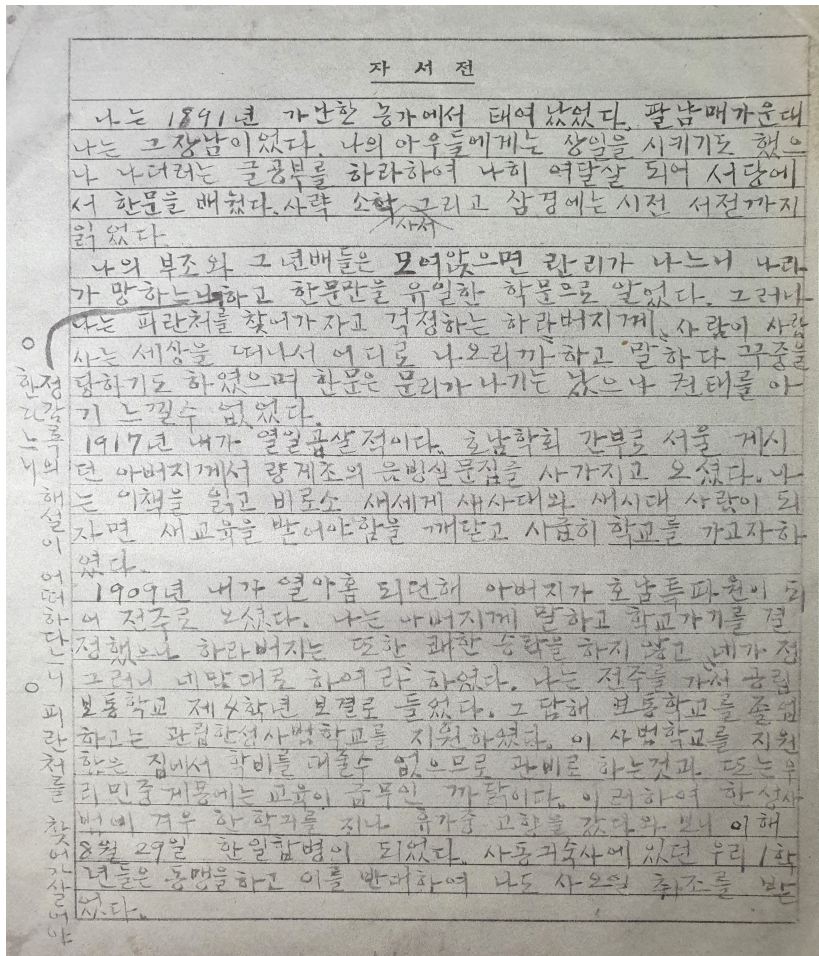
1907년 열일곱 살 되던 해, 가람은 호남학회 간부로 서울에 있던 부친이 사온 『음빙실문집』¹²⁾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다. 호남학회는 1907년 7월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애국 계몽 단체이었다. 양계초의 영향을 받아 당시 세워진 학회의 하나로 호남지역의 교육 발달에 목적을 두고 주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호남학회의 기관지인 『호남학보』 제5호~제9호(1908. 10. 25.~ 1909. 3. 25.)에는 양계초의 「정치론」 글이 연재되었다. 가람 부친 이채(李採)는 당시 호남학회 임원으로 회계원의 직함을 맡았으며, 『호남학보』에 글도 실었다. 가람은 부친이 관여했던 호남학회 관보 『호남학보』와 당시 출판된 『음빙실문집』을 통해 양계초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화사연구』 10권 1호, 민족문화사학회, 1997, 350면.

10) 최승범, 앞의 책, 12면.

11) 이병기, 「미발표 자서전」, 1950. 8. 이양배 소장. 가람의 어릴 적 학업 과정과 부친이 사 온 『음빙실문집』을 읽고 신학문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기록 등 편지 크기 6장 분량으로 일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어 가치가 있음.

12) 梁啓超 著, 『飲水室文集』, 上海: 廣智書局, 1907.



〈가람의 미발표 자서전 첫 장〉

양계초의 사상을 담은 대표 저서 『음빙실문집』¹³⁾은 1903년 한국에서 처음

13) 『음빙실문집 해제』, 梁啓超 著, 영인본 『飲氷室文集』, 이문사, 1977.

한국에서는 1903년 처음 출간되었으며 1896년부터 1902년까지의 저술이 담겨있다. 1904년 재간 이후 1905년에는 3간본(1905년까지 쓴 글을 더하여)이 간행되었

출간되었으며, 그의 부친이 사온 『음빙실문집』은 4간 본으로 1907년 출판된 상해(上海) 광지서국본(廣智書局本) 상하 2책이다.¹⁴⁾ 따라서 본 연구의 텍스트는 이 저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책은 현재 가람이 1963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장서 중에 있으며 상하 2책, 4판이며, 고문헌 자료실(개인 문고) <가람 320.4 Y17e>로 분류되어 있다. 한문(漢文)에 능통(能通)한 가람은 양계초의 저서를 원문으로 충분히 독파(讀破)하였을 것으로 본다.

2.2.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을 통한 양계초의 영향

청말 중화민국 초의 계몽사상가인 양계초 사상은 당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일본·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음빙실문집』은 그의 철학, 정치, 경제, 교육 등 사상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저술이다. 동아시아의 근대 지식인들은 서구적 근대와 근대제국주의의 침략 및 위협 속에서 전통의 붕괴와 근대화를 시대사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근대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국의 전통질서와 결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논리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을 생존의 최고 전략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근대를 창출하고자 하는 양계초와 가람을 비롯한 근대 지식인들의 사상 고찰은 오늘의 동아시아 지역성을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동아시아 근대 담론의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제기되며, 『음빙실문집』은 특히 가람의 교육 사상 전반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양계초의 서구 문화 수용은 일본을 통한 것이었고, 양계초의 교육 저술을 통한 사상은 일본, 청국을 두 단계 걸친 간접적 수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이후 일제 강점이 노골화되면서 사회진화론적 입장에서 썼던 양계초의 글은 절대적인 호응을 받으며 유입되었고, 서구 교육 사조를 소개

고, 이 어 1907년 4간 본이 출판되었다. 양계초가 쓴 모든 글이 담겨진 문집인 『飲氷室文集』은 1932년 상해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발행하였다.

14) 이병기, 『가람 이병기 전집』 6권, 2019,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186면 참조. 1910년 6월 16일의 일기에 양계초의 “『飲氷室』 하권을 빌렸다”는 기록이 있어 이후에도 계속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 주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¹⁵⁾

양계초¹⁶⁾가 일본에서 발행한 『청의보(淸議報)』, 『신민총보(新民總報)』 등의 출판물은 1898년부터 서울과 인천의 판매·보급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포되었는데, 1899년 대한제국의 독립신문에 그의 「애국론」이 실리는 등,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조선의 애국계몽 운동가들에게 소개되었다. 그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05년 간행된 『음빙실문집』이었다. 이 책은 한말의 우리나라 사상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 이를 번역하거나 출판하고 찬양한 기사들이 당시 수없이 많았다.¹⁷⁾ 그의 사상을 번역하고 소개한 사람들은 개화와 자강을 주장하던 신채호·박은식·장지연·홍필주·주시경 등 애국계몽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었다. 그의 저술은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 박은식·신채호 외에도 윤치호·안창호·한용운·안확·양주동 등에 영향을 주었고, 서구 문명 수용을 제창하고 애국계몽사상을 고취한 그의 많은 문장에 한국의 지식인들이 크게 공감하였다.

1900년대 후반기에 국권회복과 내정변법을 당면의 과제로 하고 있었던 조선의 계몽사상가들의 강한 관심은, 서양의 근대사상 그 자체보다 그 논리를 도입하여 쌓아 올린 양계초의 변법자강사상에 있었다. 가람보다 앞선 시기에 양계초의 교육 사상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지식인으로서는 박은식(1859~1925), 장지연(1864~1921), 윤치호(1866~1945), 신채호(1880~1936) 등이 있

15) 이승원, 「구한말 서구 교육사조의 수용과정 연구 : 매개자로서의 양계초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 서울대 교육사학회, 1988, 122면 참조.

16) 양계초(1873~1929)는 청말·민초시대(民初時代)에 살았던 계몽사상가·정치가·학자였다. 양계초 소년기 강유위에게 사사(師事)하였으며, 그의 애국적 이상과 변법 유신의 사상체계를 계승 발전시켜 중국 역사상 중요한 근대 전환기를 살면서 끊임없이 시대를 이끌어 간 대표적 지식인이었다. 신문·잡지 및 교육을 기반으로 변법유신(變法維新)을 도모하고, 근대화된 서구 문명을 선전함으로써 폐쇄되었던 근대 중국에 새로운 개혁의 기풍을 일으켰으며, 특히 탁월한 계몽주의 사상가·정치가·언론인·교육자·문학가로서 중국문화사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7) 최형욱, 「조선의 양계초(梁啓超) 수용과 양계초(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한국학논집』 4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9, 334면.

다. 이들의 탄생과 활동 시기는 가람보다 1세대를 앞섰으며 강유위, 엄복, 양계초 등 변법자강론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양계초의 신민사상, 사회진화론, 교육 사상을 수용하였고, 교육 사상은 교육구국론, 의무교육설, 사범교육 실시, 외래문화수용, 역사교육 등을 강조하였다.¹⁸⁾

조선의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패권과 역학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에 패한 중국은 이를 계기로 서양의 기술 뒤에 숨은 서양의 제도와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자강론에서 변법론으로 사상을 바꾸게 된다. 중국에서 혁슬리의 이론을 번역한 엄복(嚴復)의 『천연론(天然論)』(1898)과 『군학이언(群學肄言)』(1903), 양계초의 『음빙실문집』(1903)에 의해 이 들어와 조선에서 널리 읽혀졌으며, 특히 『음빙실문집』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 가람 역시 『음빙실문집』을 통해 신학문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계초의 사상은 그의 교육 사상과 활동, 학문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의 개화기 지식인들이 양계초에 대해 열광하고 신뢰하는 것과는 달리, 양계초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 한국을 지배했던 제국주의 시각에 있었다.¹⁹⁾ 서구의 사회진화론, 국가유기체설을 수용한 양계초의 사상이 일본의 가등홍지(加藤弘之)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본과 중국을 통해 전래된 사회진화론은 서구, 일본, 중국, 한국이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물의 유입과 제국주의의 침략에 생존을 위협받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대응을 위한 당시 절실한 시대적 역사적 요청으로 양계초의 사상은 중국과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양계초는 『음빙실문집』의 「변법통의(變法通議)」에서 ‘학교총론(學校總論)’을 비롯하여 ‘논과거(論科擧)’, ‘논학회(論學會)’, ‘논사범(論師範)’, ‘논여학(論女學)’, ‘논유학(論幼學)’, ‘학교여론(學校餘論)’, ‘논역서(論譯書)’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과거제 개혁’, ‘민지개발, 인재육성’을 주창하면서 특히

18) 조보로, 「한국 개화기 소설론에 나타난 양계초의 영향 연구」, 배재대 박사학위논문, 2013, 29면.

19) 최형욱, 앞의 글, 326-334면.

여성교육, 아동교육, 사범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족교육에서는 국문교육과 역사교육, 소설교육을 중시하고, 전문교육은 사범교육, 인재양성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민설(新民說)」에서는 국가의식과 국민 의식을 강조하고, 「논교육당정종지(論教育當定宗旨)」에서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정책사의(教育政策私議)」에서는 소학교육의 의무화를 강조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 3국의 위상에는 선명한 차이가 있었고, 각각 내부의 권력관계나 지식을 수용하던 지식인들의 정치적 입장 역시 달랐다. 양계초의 사상을 수용한 한국의 지식인들 역시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현실을 견지하면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사상과 활동을 펼쳐나갔다. 가람도 역시 그중 하나이며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의 수용을 통하여 그의 교육 사상을 펼쳐나갔다.

2.3. 가람 이병기의 교육 사상

2.3.1. 교육 이념

가람은 8세부터 향리에서 한학을 수업하였다. 한학을 공부하면서 몽매(蒙昧)한 구시대 구사상에 간혀 권태를 느끼고 있던 중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읽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확실한 각성을 하게 되었다. 그는 곧 신학문에 입문하여, 곧바로 1909년 전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과 더불어 한성사범학교에 지원하였다.

양계초는 철학,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역사, 문학, 어학, 등 다방면에 관심과 주장을 펼쳤는데, 유신 변법 운동에 참여하면서 교육을 모든 개혁의 근본으로 중시하게 되었다.²⁰⁾ 『음빙실문집』에 기술한 교육 관련 글 「변법통의(變法通議)」²¹⁾에서 그는 “세계의 대세를 거울삼아서 구제(舊制)를 폐지하고 신법(新法)을 사용해야 한다. 신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학교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20) 梁啓超 著, 「變法通議」, 『飲水室文集』 上卷, 上海: 廣智書局, 1907, 10면.

21) 위의 책, 1-69면.

펼쳤다.²²⁾ 인재교육을 위해 사범(師範)의 양성과 초등학교와 여학교를 건설하는 요령을 자세히 서술하고, “법은 천하의 공기(公器)이며 변(變)은 천하의 공리(公利)이다. 세계가 이미 통하여 여러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고 나날이 향상되어 가니 대세가 급박하다.”고 호소하면서 사대(事大)를 존중히 하는 중국 수구자(守舊者)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구할 것을 재촉하였다.²³⁾

가람은 그의 자서전에서 『음빙실문집』을 읽고 “비로소 새 세계 새 사대와 새 시대 사람이 되자면 새 교육을 받아야 함을 깨닫고 시급히 학교를 가고자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쓴 ‘새 사대(事大)’라는 용어는 특별히 주목되는 글귀이다. 이는 그동안 구시대 유교적 사대(事大)를 존중했던 수구자들이 벗어나 새로운 진리를 구해야 함을 재촉하는 의미로 해석되며, 가람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양계초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하다.

가람은 1909년 4월 16일 전주공립보통학교 4학년에 입학하기 바로 직전 1909년 4월 13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날 일기의 한시는 그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萬邦列在各西東 鴻哲範圍意不同
棄短取長進就地 永圖獨立六洲中²⁴⁾

이 시는 18세 가람이 가졌던 새로운 세계와 시대 인식, 경외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유교 학문인 한학에 갇혀 있던 그는 주변의 흑세무민

22) 위의 책, 23면.

한무희 역·해제, 『중국 학술 사상의 대세』, 『세계사상전집』, 삼성출판사, 1977, 150면 참조.

24) 이병기, 『가람 이병기 전집 6권 일기 I』, 전북대학교출판원, 2019, 21, 143면.

만방이 각기 동과 서에 벌려 있으니/큰 현인들의 학문의 경계와 뜻은 같지 않다/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여 앞으로 나아가/육대주 가운데 영원히 독립을 도모하리라.

하거나 민간 신앙에 좌지우지되어 우왕좌왕하는 무지한 민중들을 보면서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있었다. 동·서 만방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많은 현인들의 다양한 사상과 학문의 경계가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는 그에게 매우 경이로웠다. 그러나 새로운 사상과 학문에 대한 경외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겠다는 확고한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이나 과거의 수구세력에 대한 사대(事大)에서 벗어나고, 일제 침략의 현실에 대응하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독립을 도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람의 의지와 사고는 『음빙실문집』에 나타난 양계초의 학술·사상의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양계초도 “대개 세상의 일은 반드시 비교해 본 후에야 그 진실됨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비교해 보지 않고는 자기의 단점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장점도 알 수 없을 것이다.”²⁵⁾라는 주장을 『음빙실문집』의 「논중국학술사상변천지대세(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에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취하는 중국의 양계초가 지닌 자국 문화에 대한 주체意識의 발로이지만 한편으로는 몰락한 중화 문명의 재건 의식이 잠재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과거 중국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지닌 양계초는 외국의 사상을 중국의 사상과 비교·검토하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 사상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한편, 스스로가 시정해야 할 것을 냉정하게 하나하나 지적하였으며 단순한 정치적 계몽사상보다 학술·사상을 중요시하였다.²⁶⁾ 그러면서 서구 사상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장·단점을 비교 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계와 뜻이 넓고 다른 세계

25) 梁啓超 著,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 『飲氷室文集 上』, 上海: 廣智書局, 1907, 799-865면.

26) 양계초 저, 한무희 역, 『飲氷室文集』, 삼성출판사, 1977, 149-150면. “이것은 바로 외국 것을 소개하는 <양무운동(洋務運動)>의 단계에서 중국의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체성을 갖고 ‘중학위체(中學爲體)’, ‘서학위용(西學爲用)’이란 근본적인 자세 확립과 목적을 달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 의식은 그의 학술사상 논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중국 학술사상 변천의 대세」에 그의 민족의식과 주체성이 명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며, 말년에 그는 거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만을 한 것을 보면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 알 수 있다.”

만방 동·서양의 학문에서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겠다는 가람의 한시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고, 나아가 민족의 영원한 독립을 도모하겠다는 확고한 주체성이나 의지로 미루어 볼 때 가람의 교육 이념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민족계몽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국권 회복과 나라의 부흥과 재건을 염원하면서 국가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가람은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의식을 지닌 그의 행보는 다양한 사상이나 학문을 섭렵하되 그것을 취사선택하면서 편향되지 않았고, 외래 학문이나 사상 그리고 일제 치하 어떤 외압에도 지조 없이 흔들리지 않았다.

개화와 더불어 구국의 최우선으로 수단으로 교육을 외쳤던 앞 세대들의 노력으로 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일제 침략하에서도 민족교육을 위해 3,000여 사립학교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여건은 열악하고 미비했다. 가람은 조선 최초로 설립된 신식 정규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로서 그의 교육 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여 실천하였다. 동아시아 삼국의 역학관계와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양계초의 교육 사상을 통해 가람은 조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였으며, 그것이 가람의 교육 사상과 활동의 평생 지표가 되었다.

가람의 교육 활동은 민족교육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여 실천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격변하는 한·중·일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의 삶과 학문에 주체성을 잃지 않았다. 국문 보급과 한글 운동, 국문학 연구, 학교 교육과 민중교육 등 역사의 현장에서 교육자로 살았던 그의 삶이 민족교육의 실천이었다. 그는 편향된 이념에 흔들리지 않았다. 민중계몽의 선두에 서 있으면서도 개인적 이유²⁷⁾나 판단의 잘못²⁸⁾으로 인하여 변절하거나 지조를 잃지 않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지도 않았다. 일제에 협력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지조를 지키면서 단 한편의 친일문장도 남

27) 『가람 이병기 전집 7권 일기 II』, 전북대학교출판원, 2019, 409면.

28) 『가람 이병기 전집 8권 일기 III』, 전북대학교출판원, 2019, 419-420면.

가지 않았다.²⁹⁾ 서구사조에 휩쓸리지도 않았고, 해외의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도 주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가 처음으로 신학문에 입문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2.3.2. 교육 목적

2.3.2.1. 민중계몽을 위한 사범교육과 인재양성교육

교육에 투신한 가람이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가 사범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고 사범교육에 투신하게 된 계기를 고찰하는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 둘째는 그의 교육 활동과 그가 주장한 교육정책에서 드러나는 목적을 논의할 수 있다.

그가 선택한 한성사범³⁰⁾은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 교원양성학교로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小學校) 보급을 위해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관제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관학일 뿐만 아니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였다. 이 학교 학생에게는 전원 학비를 지급하고 기숙사에 수용하였으며, 졸업 후 취직이 완전히 보장되었다. 따라서 서울 유학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가람은 관비 지원을 받아 신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가람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중계몽에는 교육이 급무”라 생각하였고 교육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사범학교 지원 동기라 하였다.³¹⁾ 이에 따라 그가 우리 교육의 목적을 민중계몽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민중 계

29)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93, 467면.

30) 1895년 일제에 의해 서울에 설립되었던 관립 교원양성학교.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 보급을 위해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였다. 1906년에 수업연한 3년의 본과 외에, 1년 이내의 과정인 예과·속성과 및 강습과를 두면서 사립사범학교의 설립을 일체 불허하였다. 본과와 속성과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급하고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하였으며, 졸업 후 취직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관립·공립학교에 비하여 지원자의 수가 많았다. 이들 졸업자들의 보통학교 복무 연한은 본과의 경우 6년간, 속성과는 2년으로 규정하였다.

31) 이병기, 『자서전』.

몽을 위한 전문교육 기관인 사범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으며,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서학이나 전통 학문에 능한 교사 양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범학교를 선택하였고 이후 교사로서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되었다.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이 중요하다는 양계초의 교육 사상은 새로운 시대 인식과 문화 수용을 촉구하게 되었다. 과거의 교육제도와 달라진 서구 교육제도의 수립은 민지개발이나 인재육성, 국문교육, 역사교육, 민족교육 등 모든 논의에서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교 설립과 교사 양성이 최우선 과제였고 이를 위해 사범교육이 필요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육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였으며, 그가 교육의 주체자로 나서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고, 그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사범교육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는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피력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1921년 그는 서울로 와서 보통학교보다 자유로운 불교 계열 교육기관인 동광학교와 구국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휘문학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였다. 가람은 국어 교사로 일본어가 국어였던 일제 치하에서 지방어로 전락한 조선어를 교육하였다. 일제 말기 조선어가 과목에서 폐지되자 교사에서 해임되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투옥되기까지 하였다.

해방 후 나라를 되찾은 기쁨에도 불구하고 사범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국어교육은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갈팡질팡하였다.³²⁾ 이때도 가람은 교사 양성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국어교육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과서 편찬과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³³⁾

32) 이병기, 「고전과 국어교육」, 『새교육』, 1949. 3.

33) 가람이 편찬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문학독본(상)』(상문당, 1948.), 『중등국어(1~6)』(금룡도서, 1949.), 『표준 옛글』(이병기·정인승 공저, 신구문화사, 1955.) 『표준 문예독본』(이병기·정인승·백철 공편, 신구문화사, 1955.), 『표준 고등글본』(이병기·정인승·백철 공편, 신구문화사, 1956.), 『표준 국문학사』(이병기·백철 공저, 신구문화사, 1956.).

왜 임시교원양성소는 폐지하였는가?

왜 성인교육의 각처의 한글 강습은 없는가?

왜 국어교원 강습회를 자주 개최하지 않는가?

각 학교서 국어를 담당한 교원들이 단지 그 교본만 가지고 능히 가르킬 것인가? 그 교본에 해당하는 참고서도 없고 사전도 없으니 비록 국어의 조예가 있는 이라도 여간 힘들 것이 아니다. 아무리 교본은 훌륭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잘 아르지 못한다면 헛노릇이 아닌가? 문맹을 퇴치함도 시급한 일이지만 주로 학교서의 국어교육이 잘 되어야 할 것이다.³⁴⁾

교재도 미비했고, 교사 양성도 되어있지 않았다. 교재 연구는 물론 학생들에게 맞게 가르칠 교사의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는 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교육 당국이나 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였다.

일제하에서 국어교육을 하면서 일제가 편찬한 국어사전이나 교재 등을 연구하고 한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 가람은 해방 후 미군정청의 편수관으로 국어 교재편찬을 주도하였고, 국어교육 정책에 참여하였으며, 초창기 국어교육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³⁵⁾ 중등용 국어 교과서의 편찬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여³⁶⁾ 국어 교재편찬을 주도하며 많은 교재를 편찬하고 교수요목 및 교육과정에도 참여하였다. 한자 폐지 문제나 학회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로 가람 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가 주도한 미 군정기 중등 국어교본은 전체 필자 44명 가운데 홍명희, 임화, 이태준, 오장환 등 좌익 및 월북 문인이 11명이나 포함된 반면 친일 인사의 글은 거의 배제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한 뒤에는 반공주의의 기치 아래 좌익 인사를 배제하고 우익 및 친일 인사들의 글이 교과서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런 면

34) 이병기, 「해방 후 국어교육」, 『새교육』, 1948. 9.

35) 이민희, 「교육자로서의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에 관한 종합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119-126면.

36) 정영훈, 「미군정기 국어교과서의 편찬과정 재론-조선어학회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달말』 50집, 배달말학회, 2012.

———, 「해방기 국어교과서 편찬과 가람 이병기」, 『2013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익산시 문화재단, 2014.

모는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었다.³⁷⁾ 가람은 이러한 교과서의 이데올로기 편중을 이미 지적하고 우려하였다.³⁸⁾

2.3.3. 교육 대상

2.3.3.1. 아동교육을 중시하는 보통교육

양계초의 계몽·교육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지식인들은 쇠약한 국운과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과 자립을 이룰 희망적인 한국의 미래를 교육에 의지하여 기약하고자 하였다. 선진화된 과학 문명과 무력으로 밀고 오는 서양의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교육이라 생각하였다. 양계초가 주장하는 민지(民智)의 개발은 보통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아동과 여성 교육이 그 핵심에 있다.

근대 이전 유교 사상에 의해 무시되었던 아동과 여성의 민지 개발을 중요 목적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국민교육을 중시하였다.³⁹⁾ 소학 교육의 의무교육을 주장하고, 남녀 차별을 비판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⁰⁾ 그것은 결국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계몽의식의 소산(所産)이었으며, 민족과 애국을 위한 역사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여성과 아동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

1910년 가람이 한성사범에 입학한 해 2학기 한일합병이 되었다. 기숙사에 있던 가람은 동기들과 이에 동맹을 하고 반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취조를 받았다. 국권 상실 뒤 1911년에 식민지교육을 위한 일제의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자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의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파로 개편하였다. 졸업 후 그는 보통학교 교원이 되었다. 그는 남양, 여산, 전주제이공립보통학

37) 강진호, 「반공주의의 규율과 ‘국어’ 교과서 : 1946~1954년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8, 민족문화사학회, 2005; 「반공주의와 전체주의의 텃밭, 국어 교과서」, 『한겨레』, 2018. 1. 16.

38) 이병기, 「국문학과 국어교육」, 『전북일보』, 1955. 2. 20.

39) 한효·우림걸, 「양계초(梁啓超) 저술에 나타난 아동관과 아동 문학론」,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224면.

40) 이승원, 앞의 글, 18면.

교 등에서 아동교육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제의 보통교육은 그가 예상했던 인재양성 교육과는 달랐다. 일제하 보통학교의 국어는 일본어였으며, 교단에서 칼을 차고 수업을 하였다. 가람은 그 당시의 교육을 ‘노예교육’이라 하였으며, 이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사직하고 서울로 다시 오게 된다⁴¹⁾. 그런 가운데에도 일기의 아동교육 기록은 그의 아동교육에 대한 의식을 엿보게 한다.

대개 아동이 매일 학교에 오지만 그 1분 1초는 평생 동안 다시 만나보지 못할 시간이니 곧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마음대로 하고 의지가 없다면, 다만 그 시간만 도둑질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아이가 많은 생각을 할 정신을 빼앗아 유익한 바가 없도록 만들 것이니 즉 도덕상 큰 죄인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아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의 동포 형제이다. 어찌 이와 같이 마음대로 하고 의지가 없어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할 것인가.⁴²⁾

아동교육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갈파하고 있다. 가람은 1939년 4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조선일보』에 어린이와 민중을 위한 조선어 공부 글을 싣고 있다. 「당주 윤생원-반절공부-」, 「참새」, 「봄노래」, 「경모궁의 어릴 때-한중록의 일절」, 「동요」, 「감고당」, 「의」와 「에」의 쓰이는 법」, 「속담」 등 쉽고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배울 수 있는 한글 교육 내용을 기고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가람이 아동을 위하여 고전과 문학, 국어를 어떻게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 국어교육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2.3.3.2. 여성교육을 중시하는 보통교육

보통교육은 아동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교가 아니더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차별은 지구상 인구의 1/2의

41) 이병기, 「자서전」.

42) 이병기, 『일기 I』, 423면.

성과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무지에서 탈피를 위한 최소한의 보통교육은 남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인재 교육은 중요한 자원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말 지식인들은 여성교육을 통해 애국적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실력양성과 국권 회복을 염원했다. 여성교육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하고 교육단체를 조직하여 후원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면서 전기, 소설, 신문, 여성잡지 등을 통해 여성 교육을 진작하고, 역사상의 애국적 여성 인물을 부각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다.⁴³⁾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성과 아동교육이 그 중심에 있음을 인지한 가람은 누구보다도 여성의 창의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아동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아일보에 연재한 「사상의 여걸찬」(10회 연재, 『동아일보』, 1940. 1. 1.-1. 18.)에는 훌륭한 여성들의 행적을 소개함으로써 여성을 높이 평가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⁴⁴⁾을 강조한 사상이 드러나 있다. 역사상으로 드러난 여걸들은 평강공주, 만명부인, 신혜왕후, 유부인, 명덕태후, 부랑, 김만덕, 이기축의 부인 정씨, 조태억 부인 심씨, 신덕왕후 등이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백성들을 공경한 여성들이었다.

특히 가람은 고전의 여류문학에 주목하여 여성 작가들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였다. 황진이의 시조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그를 스승으로 섬길 정도였다.⁴⁵⁾ 『한중록』, 『인현왕후전』, 내간, 일기, 기행 등의 문학 작품에서 보여주는 혜경궁 홍씨를 비롯한 국문학의 여성 작가들의 문학과 문제⁴⁶⁾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일기의 곳곳에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나혜석 같은 여성 인재가 예술과 학술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⁴⁷⁾ 아동교육과 여성 교육의 필요성⁴⁸⁾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43) 김성은, 「한말 한국지식인과 양계초의 여성교육론」, 『여성과 역사』 21, 한국여성사학회, 2014, 121면.

44) 이병기, 「고대 조선의 여류교육가」, 『신생』 제3권 제2호, 1930. 2.

45) 이병기, 「황진이의 시조 일수가 지침」, 『동아일보』, 1938. 1. 29.

46) 민병도, 『조선역대여류문집』, 을유문화사, 1950.

47) 이병기 저, 정병욱 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42면 참조.

2.3.3.3. 보통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가람은 3·1운동을 계기로 결국 보통학교 교사를 사직하고 서울로 왔으며, 이후 동광, 휘문 등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휘문학교에서 있었던 학생들의 소요 사태는 1928년 교장의 친일적 태도에 항거하고 조선어 시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에 들어가 30여 명이 퇴교 조치 되었으며, 1930년에는 광주학생사건이 발생하자 400여 명의 학생이 동조 시위에 참가하여 수십 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사건들에 관한 내용은 가람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가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학생 편에 서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학비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크게 안타까워했다.

그는 휘문학교에서 조선어 시간이 없어지자 교직을 잃게 되었으며 이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는 시조와 고전 등 끊임없이 국문학을 연구하고, 고문헌을 수집하였다. 대학에서는 그러한 그에게 강의를 요청하였다. 해방 전 그는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에서 국문학 강의를 하였다. 1946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단국대학교, 신문학원, 서라벌예술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의대 예과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또한 6·25 전쟁 후에는 전북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중앙대학교, 원광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는 교육자로 입문하여 45년 동안 여러 학교 강단을 거치면서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냈다.

『동아일보』와 『문장』을 통하여 ‘시조고선제’를 실시하는 등 문단 활동을 통하여 시조 시인과 문인들을 양성하였으며, 평생 가르치고 연구한 학문을 통해서 훌륭한 대학의 국문학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가람 스스로 제자 복이 많다고 자부했던⁴⁸⁾ 만큼 그에게 수업을 받은 수많은 후배 학자와 문인들이 인재가 되어 현대 국어국문학계를 이끌어가는 초석이 되었다.

48) 남정희, 앞의 글, 35-64면.

49) 이병기, 「백련」, 『현대문학』, 12권 1호, 1955. 12.

2.3.4. 교육 내용

3.3.4.1. 국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

동아시아 근대국가들은 앞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 민족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최우선 과제는 국문교육을 위한 민족어와 민족문학의 정립이었다. 서구에서도 근대 국가들의 자국어 정립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과 같이 한문 문화권에 있던 근대 동아시아의 국가들 한, 중, 일의 자국어 정립과 근대 국어의 확립은 공통된 과제였다. 국어, 국사 그리고 민족 문화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었다. 그것은 민족은 공통의 언어 집단이고,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집단이며, 독자적 문화 집단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양계초도 민족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 국민이 책을 읽도록 하는 국문 교육을 중시하였고 애국심과 민족 단결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역사교육을 중시하였다.

가람은 보통학교 교사에서 중등학교로 옮기면서 과목은 습자, 한문 등을 가르치게 되었으나 그가 실제로 교육한 과목은 우리 국어였다. 한성 사범 시절 가람은 일제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주시경(1876~1914)의 조선어강습을 받았다. 주시경은 실천적 국어학자로 우리말 문법을 최초로 정립하여 한글의 전문적 이론 연구하였다. 그는 국어교육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한글의 대중화와 근대화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한 개척자였다. 1911년부터 박동의 보성중학교에 조선어강습원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가람은 그때 주시경의 강습을 받았다. 국가의 보존과 융성은 국어와 국문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어문 민족주의적 사고를 견지한 주시경의 이론과 영향은 그 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가람은 평생을 그의 가르침을 지켰다.

1921년 주시경 사후 흠어졌던 그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가람은 함께 강습을 받았던 신명균, 권덕규, 장지영 등과 휘문학교에서 조선어연구회를 결성하고 창립하였으며, 간사의 임무를 맡아 10년을 노력하였다. 가람은 한글 문법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조선문법강화 1-5」(『조선강단』, 『대중공론』 1929. 9-1930. 9), 「조선어강화 1-6」(『가톨릭청년』 1933. 6.-1934. 1)을 발표하

였다. 그의 문법은 주시경의 문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나름 창의적으로 기술하였다.

한글은 조선의 고유한 글을 이름이다. 이는 가장 크고 많은 뜻을 가진 글이라는 말이니 다시 쉽게 말하면 모든 글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글이라 한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글을 가지고도 우리는 잘 쓰지를 못하여 오늘날까지 이 모양으로 된 것은 오로지 우리의 허물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이만도 못한 글을 가지고도 이보다 잘 쓰며 자랑을 삼는 것이 여북 많은가 우리도 지금부터는 이 글을 잘 쓰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하여 한글 연구를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⁵⁰⁾

그는 한글 연구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한글은 조선의 고유한 글이며 모든 글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글이라 하였다. 그의 한글에 대한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가람은 계속 한글을 연구하였으며, 조선어연구회 동인지 『한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가람의 한글 연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유희로 된 말 공부」(한글 1권 2호, 1927. 3.)

「원시어와 변성어」(한글 1권 3호, 1927. 4.)

「겹말」(한글 1권 4호, 1927. 6.)

「한자의 뉘이 이르는 음」(한글 1권 5호, 1927. 7.)

「한글의 경과」(한글 1권 6호, 1932. 12.)

「말과 글(1강)」(한글 2권 5호, 1934. 8.)

「말 모르는 작가들」(한글 7권 8호, 1939. 9.)

『언음첩고』 해설」(한글 8권 9호, 1940. 12.)

50) 이병기, 「조선문법강화」 『조선강단』 2권 1호, 1930. 1.

일제 치하에서도 조선어학회는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국어사전 편찬 등 한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가람은 맞춤법통일안 등에 문인들을 대표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로 이해와 조정을 이끌어냈으며, 한글 정립에 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가람이 발표한 글은 한글 정리에 당면한 문제들의 과정과 내용을 보여준다.

- 「우리말의 표기에의 몇몇」(동광 9호, 1927. 1.)
- 「조선어와 우리 임무」(조선일보, 1928. 11. 13.)
- 「한글 정리에 대한 제가의 의견 (16)-(17)」(동아일보, 1928. 11. 20-22.)
- 「조선어 연구가 필요」(문예공론 1호, 1929. 5.)
- 「조선어와 작문」(학생 1권 2호, 1929. 4.)
- 「조선어연구의 현상」(조선일보, 1930. 11. 19.)
- 「한글운동의 전개」(중앙일보, 1932. 1. 2.)
- 「한자 존폐에 대한 소감」(백민 3권 5호, 1947. 9.)
- 「긴급한 국어문제 1-3」(조선일보, 1949. 2. 11-15.)

조선어 연구의 필요성, 조선어와 우리의 임무, 한글 운동의 전개, 한자 존폐 등 긴급한 우리 국어의 문제는 가람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들이었다. 이는 가람이 활동한 한글 운동과 그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한글 정리는 어떻게 할가:사계전문가의 의견」(조선일보, 1929. 5. 30.)
- 「한글 연구가 제씨의 감상과 제의-신철자법을 실행하라」(동아일보, 1930. 11. 19.)
- 「한글 연구가 제씨의 감상과 제의- 한자 제한 정도와 실현할 구체적 방법」(동아일보, 1931. 1. 1-2.)
- 「한글날 기념 사계의 권위를 망라 한글 좌담회 개최」(동아일보, 1931. 10. 29- 31.)
-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별건곤 3권 2호, 1928. 5.)
- 「한글과 한글날(상하)」(전북일보, 1955. 10. 11-12.)
- 「우리문화의 성조이신 세종대왕」(삼남일보, 1956. 10. 10.)

그는 한글을 제정하여 반포한 세조대왕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한글날을 제정하고 그 뜻을 기리는데 노력하였다. 한글 정리는 어떻게 할까, 한자 제한 정도와 실현의 구체적 방법, 철자법 개량을 위해 참여하고 노력하였으며, 한글날을 제정하고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며 여론 수렴을 위한 좌담회에 빠지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문 교육과 한글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과 창작 그리고 학문 연구는 모두 우리 국어의 발전과 교육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것은 민족교육의 중심이었다. 특히 이러한 그의 한글 운동과 활동으로 인하여 그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가람은 언어와 문자가 분리된 상황에서 내려온 과거 문자 생활에서 벗어나 언문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아동과 대중의 한글 교육을 중시하고 한글 강습에 힘을 쏟았으며, 조선어연구회 창립,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국어사전 편찬, 시조 부흥과 창작, 고전연구 등에 힘썼다.

다만 가람은 주시경의 제자로서 초기 국어교육이나 문법 연구 등에 천착하였지만 끝까지 국어학자로서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 그의 국어교육은 문학 및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는 국문학자로서의 역할로 확장하고 확대되어 나가 더욱 큰 빛을 발하게 되었다. 국어연구나 국어학에 한정되지 않고 민중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국어와 국문학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말을 갈고 닦아 국어의 완성과 최고의 목표는 문학이라고 인식하였다.

우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자국어보다도 타국어 그것을 낮게 아는 오늘날 역경에 있서 오히려 이만한 문예계의 현상을 지니고 잇습은 전혀 우리 민중의 자아의식이 밝혀지는 까닭에 있다 하겠다.

아무튼 오늘날 교육이 보급됨을 팔어 우리 민중의 자아의식이 밝혀지며 민중의 자아의식이 밝혀짐을 팔어 우리 문예계가 성해질 것인데 이에 문예운동과 갖치 조선어운동이 잇서야 할 것이다.

조선말로 발표되는 조선문제가 조선어 그것과 엇더한 관계를 가겠스랴. 만일 우리의 사상·감정을 다른 나라 말로써 발표한다면 그것을 과연 조선문예라 하랴. 조선문제는 조선말로만 발표된 그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 조선문예 작가는 먼저 조선어연구를 할 필요가 잇을 것 아니라. 그저 조선말의 어의,

어감, 어세도 잘 모르고 (조선문예를 잘 지어낼 수가 없을 것이다. 수사법을
아니 배웠서도 수사법 이상의 名文을 지어내는 문장과와 갖치 조선어 그것을
아니 연구해도 훌륭한 조선문예를 지어낼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러치지 못
하다면 반듯이 조선어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⁵¹⁾

이 글은 민중의 자아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문예운동이 필요하며, 조선
문예 즉 문학의 발전을 위해 조선어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가람
의 한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국어와 문학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그의 한글 운동은 문학 및 글쓰기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학 교육에 있어서 고시조를 현대시조로
부활시킨 공적은 국어와 문학, 고전과 현대를 연결시키고 국어과 문학을 하
나로 통합시킨 민족교육의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가람은 언어와 매체의 변화에 따른 근대의식의 전환⁵²⁾을 재빠르게 감지
하고, 구시대의 난삽한 한문을 폐지하고 언문일치와 자국어인 한글 쓰기와
조선 문학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국문교육과 연구 강습을 실천적으로 그
의 전 생애를 바쳐 노력하였다. 국문교육을 중시한 양계초도 중국 민중들에
게 문학 및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근대적 발전을 주도한
문학의 언어·형식면에서 가장 핵심인 문체 혁신을 이루어낸 점과 상통한다
할 수 있다.

그는 한글과 문학 교육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우수성과 주체성을 드러내
고, 고전을 부흥하고 대중화·현대화하고 혁신하여 한국문학 계승 발전에 심
혈을 기울였다. 그의 한글 운동은 단순한 언어보급 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
이었으며 애국·민중·계몽·교육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⁵³⁾

51) 이병기, 「조선어연구가 필요」, 『문예공론』 창간호, 1929. 5.

52) 이경애, 앞의 글, 2018, 222면.

53) 박용규, 앞의 글, 38-50면 참조.

2.3.4.2.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

가람의 민족교육은 국문 교육과 더불어 역사교육의 면모를 구체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역사교육이 자국의 긍지와 자존심을 세우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양계초는 애국심의 근원을 역사교육에서 찾고 역사 속 영웅들을 등장시켜 위기에 처한 중국을 구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의 지식인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역사, 전기, 소설을 통한 민족교육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에서도 나타났거니와 이들은 이미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의 전기나 『이태리삼걸전』, 『과란망국사』, 『월남망국사』, 『미국독립사』, 『이태리독립사』, 『법국혁명사』, 『이태리삼걸전』 등의 해외 역사들도 소개하였다.

가람도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의 역사교육의 바탕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었다. 그는 우리 역사 연구를 위하여 진단학회를 창립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 속 영웅과 위인들을 부각시켜 신문과 잡지에 발표하였다. 역사상 여걸들의 행적을 통한 역사교육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동아일보에 연재한 「어린이 역사」 144편의 연재는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을 기술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는 교육적 효과를 보여준다.

가람의 역사적 시각은 한국의 우수성과 외세에 대항하는 의식을 담은 역사적 사적을 드러내어 그 의의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삼국시대의 영웅들⁵⁴⁾ 신라의 화랑⁵⁵⁾, 이순신⁵⁶⁾, 임진왜란과 의병⁵⁷⁾, 뛰어난 여걸들의 활약, 명성황후 시해 사건⁵⁸⁾ 경복궁 중건⁵⁹⁾ 등의 역사적 사건들의 기술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54) 「삼국시대의 무협전」 『신동아』 3권 10호, 1933. 10.

55) 「신라사의 정화 화랑도」, 『조선일보』, 1940. 1. 4.

56) 「난세에 이 성웅」, 『조선일보』, 1946. 11. 26.

57) 「임진왜란과 의병의 쫓기와 그 전국추이의 대개」, 『호남철의사』, 1953. 4.

58) 「을미년의 사적 고찰」, 『삼남일보』, 1955. 1. 1.

59) 「경복궁중건과 민원」, 『신동아』 4권 10호, 1934. 10.

2.3.5. 교육 방법

2.3.5.1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 활동

가람은 남양, 여산 전주제일보통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광, 휘문 등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연희전문, 보성전문,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신문학원, 서라벌예술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의대 예과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또한 6·25 전쟁 후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원광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초·중등학교와 대학교를 두루 걸치면서 평생 학교 교육을 실행하는 공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2.3.5.2 사회교육을 통한 교육 활동

학교 교사였던 가람은 학교 밖에서는 한글 운동의 선구자로, 우리글과 문학, 역사 등을 가르치는 민중 계몽교육자의 삶을 살았다.⁶⁰⁾ 양계초는 『음빙실문집』의 「신민설(新民說)」에서 신민 교육으로 전 국민교육, 아동 본성에 따르는 교육, 중서(中西) 겸통(兼通)과 지정의(知情意) 조화의 교육, 정치교육과 사회교육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 국민이 소학교 이상 보통교육을 받게 하여 모두 신민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자국 학문의 바탕 위에 서방의 것을 배워야 함을 주장하였다.

가람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당면한 과제로 생각하였다. 학교 교육과 더불어 사회교육도 중요시하였는데 특히 사회교육은 정식 기관이 아닌, 언론 단체, 강연 등을 통해 일반 시민을 교육하는 것이며 또한 언론을 통해 여러 글을 게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양계초의 신민 교육에서 가람에게 해당하는 교육은 역시 한글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에 초점이 맞춰진다. 가람은 수시로 한글 강습을 하였다.⁶¹⁾ 가람

60) 이민희, 「교육자로서의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에 관한 종합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99면.

의 대표적인 한글 강습은 동아일보와 조선어학회가 주관한 호남지역 한글 강습이었다. 1931년 여름 방학 동안 일제의 금지와 감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려 3천여 명이 참가하였을 정도였다. 광복 직후 후 고향 여산에서 청년들 초청으로 한글 강습을 하였으며, 부족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 교원 양성소인 세종중등교원양성소에서 국어 강습을 하였다. 그는 한글 강습에서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 시조, 역사 등을 함께 교육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습에 나섰다.

옛날과 같이 학생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더욱이 국어교육은 그러하다. 이리하여 학교나 가정의 협력하여 국어교육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어교육이 잘 되면 우리 국민정신(國民精神)은 따라 양양(昂揚)할 것이다.⁶²⁾

이 글은 국어교육이 국민정신을 양양시킨다는 점에서 민중계몽과 민족교육이라는 그의 사회교육에 대한 뜻이 잘 나타나고 있다. 가람의 사회교육은 문자 보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문학 역사 등과 항상 함께하였으며 그것은 양계초의 사상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교육에 대한 양계초의 초인적인 역량은 문·사·철(文史哲)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에 기반을 두었으며, 그의 학문 활동은 문학·역사·철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교육학 등 수많은 분야를 망라했고 다양한 방면의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방대한 저술 속에 담아내었다.⁶³⁾

백과사전적 저술을 남긴 양계초와 비교해서 가람 역시 국학 분야의 다양한 학문에 걸쳐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구비 민속학·서지학·교육

61) 가람이 일반 대중을 위한 한글 강연에 대해 살펴볼 자료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발표 기념 강연-우리글 발전에 대하여-이병기」(1926. 11. 13.), 「시가문제 강연회」(1928. 12. 29.), 「14일부터 한글 강연회」(1929. 1. 10.), 「한글 강연회 금일부터 개시」(1929. 2. 18.) 등.

62) 이병기, 「국문학과 국어교육」, 『전북일보』, 1955. 2. 20.

63)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간행(임지균, 1932)한 『飲水室合集』은 45권이며, 『음빙실합집(飲水室合集)』(『음빙실전집(飲水室專集)』·『음빙실문집(飲水室文集)』 합해서)으로 전한다.

학·역사 등 다방면의 연구 성과를 방대한 국학 연구와 저술을 남겼다. 평론·전기·역사·지리·잡문·수필·시(한시·가사·신체시·소설·번역·시조·신시)기행·소설·일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국어국문학, 민속학, 역사학, 교육학 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가 이렇게 장르를 가리지 다양한 분야의 저술을 남겼다.

가람에게 영향을 끼친 『음빙실문집』의 사상은 대체로 양계초의 유신 운동과 계몽 활동 시기(1896~1903)의 사상들이었다. 양계초가 신문·잡지 및 교육을 기반으로 변법유신(變法維新)을 도모하고, 계몽주의 사상을 펼친 것과 같이 가람도 신문·잡지 및 교육을 기반으로 그의 학문과 사상을 펼쳤다. 가람은 일제가 문화정치의 표방으로 신문·잡지 발간을 허용한 이후⁶⁴⁾ 그의 학문과 문학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35종의 단행본 저술을 비롯하여 118종의 신문과 잡지 및 학술지에 850편의 저술을 발표하였다.⁶⁵⁾

3. 결론

가람은 청년기에 접한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통하여 그는 동·서양의 사상에 눈을 뜨고 신학문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생애를 걸쳐 그의 교육적 삶과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양계초의 변법통의(變法通議)와 「신민설(新民說)」에 나타난 교육 사상은 가람에게 그대로 수용되었고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가 되어 평생을 학교 교육에 헌신하였고, 한글 운동의 선구자로, 우리글과 문학, 역사 등을 가르치는 민중 계몽 교육자의 삶을 살았다.

그의 교육 사상의 근간은 일제 침략의 현실에 대응하여 우리 민족의 영원한 독립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교육

64) 이병기 저, 정병욱 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108면.

65) 이경애,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국어문학회, 2017, 243면.

이념은 조선의 독립을 위한 민족계몽이었다, 이를 위한 교육 목적은 사범교육과 인재양성교육으로 이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그의 교육 대상은 아동교육과 여성 교육에 있었고 보통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발전하였다. 교육 내용은 국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과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교육이었으며, 교육 방법은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 활동과 사회교육을 통한 교육 활동을 말할 수 있다.

앞선 개화기 지식인들이 수용한 양계초의 교육 사상은 국권 회복과 부강을 위한 교육구국론에 입각하여 민족교육, 국문교육, 사범교육, 여성교육, 역사교육 등을 중시한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되는 점에서 가람의 특징은 조선 최초로 설립된 정규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의 교사로서 앞 세대들이 받아들이고 펼쳤던 교육 사상과 교육적 열망과 이상을 우리 사회 현실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가람은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였다. 또한 45년 동안 가르치고 연구한 학문과 강단, 문단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와 문인들을 키워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였으며, 민족교육을 위해 민족어를 정립하고 국문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였다. 그는 평생 삶과 학문에 주체성을 잃지 않았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해방, 한국전쟁 등 고난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개화기 지식인들이 교육에 대한 염원이었던 국문의 보급과 정립, 국문 교육은 이루어졌으며, 학교 교육과 민중교육은 자리를 잡았다. 국권도 회복되었으며, 한국의 교육은 성장했다. 한글의 발전과 확산된 학교 교육으로 한국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여 자리를 잡고 한 세기가 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가람 학문에 관한 연구가 한정된 틀을 벗어나 중국 양계초의 수용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인식과 서구 문화의 수용, 근대적 문화 사상, 애국 계몽사상 즉 계몽·교육 사상으로 시선을 돌려 근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이라는 좀 더 확장된 새로운 시야와 안목을 넓힐 수 있게 해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근거로 양계초의 교육 사상을 수용한 가람의 교육 사상과 활동은 근대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으며, 교육을 통해 이루어온 국권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동교육과 국문교육 역사교육을 통한 민족교육과 사범교육과 인재양성교육을 통한 전문교육에 헌신한 가람의 업적은 교육 실천을 통한 역사의 산증인으로서의 근·현대 한국 교육의 지형도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이병기, 『미발표 가람일기』, 유재희 소장.
- _____, 『문학독본(상)』, 상문당, 1948.
- _____, 『중등국어(1-6)』, 금룡도서, 1949.
- _____, 「조선어와 우리 임무」, 『조선일보』, 1928. 11. 13.
- _____, 「朝鮮文法講話」, 『대중공론』 제1권제1호, 1929. 9. 10.
- _____, 「古代 朝鮮의 女流教育家」, 『신생』 제3권 제2호, 1930. 02.
- _____, 「朝鮮語講話(1-6)」, 『카톨릭청년』 1,2,3,4,6,8호, 1933. 6. 1. - 1934. 1. 1.
- _____, 「조선어 공부」, 『조선일보』, 1939. 4. 23.-1939. 7. 9.
- _____, 「三國時代의 武俠傳」, 『신동아』 3권 10호, 1933. 10.
- _____, 「경복궁중건과 민원」, 『신동아』 4권 10호, 1934. 10.
- _____, 「史上의 女傑撰 '연재(전10회)」, 동아일보, 1940. 1. 1. - 1940. 1. 18.
- _____, 「新羅史의 精華 花郎道」, 『新羅의 花郎道』, 『조선일보』, 1940. 1. 4.
- _____, 「어린이歷史」 연재(전8회), 『동아일보』, 1938. 10. 16. - 1940. 8. 4.
- _____, 「史上에 나타난 馬公의 忠勇譚」, 『춘추』 3권 1호, 1942. 1.
- _____, 「난세에 이 聖雄」, 『조선일보』, 1946. 11. 26.
- _____, 「해방 후 국어교육」, 『새교육』, 1948. 9.
- _____, 「긴급한 국어문제(1-3)」, 『조선일보』, 1949. 2. 11. -12, 1949. 2. 15.
- _____, 「고전과 국어교육」, 『새교육』, 1949. 3.
- _____, 「橫說豎說-正士와 處世」, 『大潮』 4권 2호, 1949. 7.
- _____, 「해방전후기(Ⅰ)」, 『경향신문』, 1949. 9. 25.
- _____, 「고전문학론」, 『문학』 6권3호, 1950. 5.
- _____, 「미발표 자서전」, 1950. 8. 이양배 소장.
- _____, 「壬辰倭亂과 義兵의 鬪기와 그戰局推移의 大概」, 『호남절의사』, 1953. 4.
- _____, 「乙未年の 史的 考察」, 『삼남일보』, 1955. 1. 1.
- _____, 「국문학과 국어교육」, 『전북일보』, 1955. 2. 20.

- _____, 「오공증」, 『전북대학교보』, 1955. 11. 30.
- _____, 「나의 한 돌이켜 생각나는 옛날」, 『한글』 120호, 1956. 11. 30.
- 이병기 · 정인승 공저, 『표준 옛글』, 신구문화사, 1955.
- 이병기 · 정인승 · 백철 공편, 『표준 문예독본』, 신구문화사, 1955.
- 이병기 · 정인승 · 백철 공편, 『표준 고등글본』, 신구문화사, 1956.
- 이병기 · 백철 공저, 『표준 국문학사』, 신구문화사, 1956.
- 이병기 저, 정병욱 · 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6.
- 梁啓超 著, 『飲冰室文集』, 上海: 廣智書局, 1907.
- 梁啓超 著, 영인본 『飲冰室文集』, 이문사, 1977.

2. 논저

- 강진호, 「반공주의의 규율과 ‘국어’ 교과서: 1946~1954년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 구자역, 「양계초의 민족교육론」, 『한국교육논단』 3권 1호,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2004.
- 김민수, 「우리 스승 가람 선생」, 『어문연구』 29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 김민희, 「양계초 교육 사상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성은, 「한말 한국지식인과 양계초의 여성교육론 비교」, 『여성과 역사』 21, 한국여성사학회, 2014.
- 김윤식, 「문학교육과 이데올로기-국어교과서의 역사성 비판」, 이응백 외, 『광복후의 국어교육』, 한샘출판사, 1992.
- 김춘남, 「양계초를 통한 만해의 서구사상수용: 조선 불교유신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4.
- 김현숙, 「양계초의 교육 사상에 대한 일고찰: 무술변법시기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 남민우, 「미군정기 국어교육계의 구조와 의미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4집, 국어교육학회, 2005.

- 남정희, 「가람 이병기의 여성문학과 여성성」, 『우리문학연구』 45집, 우리문학회, 2015.
- 문대일, 「양주동(梁柱東)과 양계초(梁啓超)의 시(詩)와 시론(詩論)의 관련 양상」, 『세계문학비교연구』 57, 세계문학비교학회, 2016.
- 박병순, 「가람 이병기 스승님의 추모」, 『문학한글』 8, 한글학회, 1994.
- 박용규, 「이병기의 한글운동과 조선어학회 사건의 의미」, 『2013 가람이병기 학술 대회 자료집』, 익산시 문화재단, 2013. 9. 6.
- 박찬승, 「한말 신채호와 양계초의 역사연구방법론 비교」, 『한국사학사학보』 9, 한국사학사학회, 2004.
- 박홍식, 「안화(安廓)의 애국계몽 사상(思想) -철학사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1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배개화, 「이병기를 통해 본 근대적 문학어의 창안」,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2005.
- 배정자, 「양계초 변혁사상에 대한 일고」,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백현숙, 「장지연의 자강사상」,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서상철, 「양계초의 여성론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연구: 양계초를 통한 서구사상수용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75.
- 양계초 저, 한무희 역, 『飮水室文集』, 삼성출판사, 1977.
- 예동학인, 「가람과 나」, 『전북대학교보』 26호, 전북대, 1956. 6. 22.
- 오조자, 「박은식의 교육 사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육연옥, 「윤치호와 양계초의 교육 사상 비교 :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윤여탁 외,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재-건국기」, 『국어교육 100년사 I』,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6.
- 이경애, 「전통지향과 근대지향의 간극을 넘어서-가람 이병기의 근대의식-」, 『국어문학』 69, 국어문학회, 2018.
- ,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국어문학회, 2017.

- 이명수, 「양계초의 신민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이민희, 「교육자로서의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에 관한 종합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 이승원, 「양계초의 신민교육 사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 _____, 「舊韓末 西歐 教育思潮의 受用過程 研究: 媒介者로서의 梁啓超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 서울대 교육사학회, 1988.
- 정영훈, 「미군정기 국어교과서의 편찬과정 재론-조선어학회와 조선문화건설중앙 협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달말』 50집, 배달말학회, 2012.
- _____, 「해방기 국어교과서 편찬과 가람 이병기」, 『2013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 자료집』, 익산시 문화재단, 2014.
- 정문권, 조보로, 「장지연과 양계초의 애국계몽사상 비교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37, 2012.
- 차혜영, 「『조선학』과 식민지 근대의 ‘지(知)’의 제도-문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호, 국어국문학회, 2005.
-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 최향순, 「양계초(1873~1929)의 교육 사상 재고찰」, 『한국교육사학』 18, 한국교육사학회, 1996.
- 최형욱, 「조선의 양계초(梁啓超) 수용과 양계초(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한국학논집』 4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9.
- 허도학, 「양계초사상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6.
- 한효 · 우림걸, 「양계초(梁啓超) 저술에 나타난 아동관과 아동 문학론」, 『반교어문연구』 44, 반교어문학회, 2016.
- 「훈민정음발표 기념강연 -우리글발전에대하여-」, 『조선일보』, 1926. 11. 13.
- 「시가문제 강연회」, 『조선일보』, 1928. 12. 29.
- 「14일부터한글강연회」, 『조선일보』, 1929. 1. 10.
- 「한글강연회 금일부터개시」, 『조선일보』, 1929. 2. 18.

【Abstract】

Garam(嘉藍) Lee Byeongki(李秉岐)'s Educational Thought
- Centering on the Influence of Liang Qichao -

Lee, Kyeong-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the acceptance of the Chinese Liang qi-chao(1873-1929)'s thought during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which was the basis of the study and thought of Lee Byung-ki(1891-1978)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Garam's academic and educational activities devoted to lifelong education. Thus, it is in depth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Garam's studies and ideas that accepted Liang qi-chao's thought are viable countermeasures against imperialism and the invasion of Western powers.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sight of Garam's ideas through exchanges of East Asian intellectuals who were made in historical interests Historical interests of Korea, China and Japan pushing and pulling each other.

Garam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by accepting the ideas of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hus, he not only focused on women's education and children's education, but also focused on national education centered on Korean education and history education, but also lived as a leading educational practitioner for public education and folk enlightenment education. He is known as a Korean literary scholar who inherited the Confucian tradition of Korea, but he who embraced the thought of Liang qi-chao is also an educator and scholar with modern consciousness and East Asian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driving force of the academic and educational ideas of

Garam Lee Byung-ki, who led the modern development and made innovation in the modern educational ideas, and enhance the significance and modern status of his educational thought.

Keyword : Garam Lee Byeonggi, Liang Qichao, the Eumbingsilmunjip, educational thought, public enlightenment,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3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